
브라질 노동당의 몰락과 보수진영의 부상

에스테르 솔라노 가예고
상파울루연방대학교 교수

원제와 출처: Esther Solano Gallego, "Brasil: la caída del PT y el ascenso conservador",
Nueva Sociedad, No. 266, noviembre-diciembre de 2016, pp. 147-155

핵심어: 우파, 복음주의자, 탄핵, 노동당, 브라질, 중남미, 라틴아메리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지금, 이 과정에서 브라질을 침몰시킨 진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한 요소들이 이제 충분히 존재한다.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그 과정은 브라질의 민주적 규범을 바꾸어 놓았다. 첫 번째 요인들은 노동당(PT) 자신의 정부와 관련된다. 경제 상황 악화와 지우마 내각의 위기 대처 능력 부족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과도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성과는 민주적 신의까지 잠식한다. 그리하여 경제적 격동기에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권위주의적 또는 반(反)민주주의적 해결책을 옹호하는 이른바 “양면적 민주주의자”(democratas ambivalentes)가

힘을 얻는 지경에 이른다. 기술 관료를 우선시 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소통 불능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역량 부족은 브라질처럼 고도로 분화된 정당 체제의 연합형 대통령제(presidencialismo de coalición)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¹⁾ 여기에서 유일하게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자신의 정당, 그 연합 기반, 그리고 야당과의 지속적인 소통이다. 하지만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그 무엇과도 대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셋을 한꺼번에 분노케 했다.

두 번째 요인들은 노동당의 정치적 결정과 관련된다. 탄핵절차를 맡았던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은 항상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그리고 지우마 호세프 정부와 연합했다(그 연합을 통해 미세우 테메르(Michel Temer)가 부통령이 되었고, 부통령에서 플라날투(Planalto)²⁾로 뛰어올랐다). 룰라주의(lulismo)³⁾는 경제, 정치, 언론의 소수 권력자들과 선을 긋고 맞서는 대신 타협을 선택했다. 이 결정으로 정부 업무수행은 가능했지만, 후에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노동당은 구태의연한 최악의 정치를 일삼던 집단들과 연합하고 밀착하면서, 브라질의 권력 구도 안에서 길을 잃은 ‘또 하나의 정당’(un partido más)이 되어버렸다. 최근 수년 동안 노동당운동(petismo)은⁴⁾ 그것을 출현시켰던 사회적 기반과 분리되었다. 노동당운동은 더는 보수주의, 처벌중심주의, 종교적 근본주의 집단들의 공격에 맞서 진보주의적 가치를 지키는 투쟁을 대표하지 못했다. 여성, 변두리 흑인 청년, LGBT 집단과 원주민은 노동당 성향의 정부들이 내놓은 정책들에 배신당했다고 느끼곤 한다.

1) 이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할 것. Germán Lodola: Brasil abre una peligrosa caja de Pandora en *La Nación*, 26/4/2016.

2) 브라질 대통령 집무실이다-옮긴이.

3)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의 정치적 지향. 룰라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구성된 정치적 세력, 그들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전반적으로 일컫는다-옮긴이.

4) 노동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적 세력과 그들의 정치적 지향을 의미한다-옮긴이.

마지막으로 탄핵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당의 정책으로 혜택을 받았지만, 결코 그 당이 자신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 일부 정치·경제 집단들의 욕망이다. 소비와 소득 재분배를 통해 수백만 명의 빈민층을 포용하는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프로그램과 같은) 노동당 성향의 정책은 브라질 사회처럼 불평등하고 보수적이며 차별 위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던 때 계급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색깔이 집회참가자들에게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노동당 집권 기간 수백만 명의 브라질인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 계급 간 긴장과 혐오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집회 참가자 가운데 70.9%가 대학의 적극적 우대조치 정책(*discriminação positiva*)⁵⁾이 인종주의를 강화한다고 답했고, 60.4%는 보우사 파밀리아 소득 재분배 프로그램이 ‘게으른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financia a perezosos)고 답했으며, 86.4%는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최상의 방법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 답했다. 또한, 70.4%는 능력주의 담론을 신뢰한다고 답했다.⁶⁾ 좌파가 약한 곳에서 근본주의적, 차별위주주의, 반동적 보수주의는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무기소지규제 완화 또는 형사처벌 대상연령 하향조정과 같은 법안 제안, 교내에서 교수와 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 ‘정파 없는 학교’(Escuela sin partido)와 같은 논쟁의 여지가 많은 기획은 학생 시위의 한 가운데서 빠른 진전을 보인다.

테메르 정부가 취한 첫 번째 조치들은 그의 의도가 민영화, 공적 자금 삭감,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브라질 노동법 개혁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다른

5)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말한다-울긴이.

6) 탄핵 지지와 반대 집회 동안 진행된 연구결과 일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탄핵찬반집회에 관한 연구」(Pesquisa sobre os manifestante pró e anti impeachment) <<https://gpapai.usp.br/pesquisa/>>

한편, 기업인, 농업 관련 산업가, 근본주의적 복음주의자를 대변하는 의회 내 세력이 탄핵 시기에 테메르와 연합한 점으로 보아, 지우마 호세프 집권 기간에 이미 등장한 보수적 반동은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연합이란 정치에 없다는 점을, 지지를 받을 때는 값비싼 대가가 따를 리란 점을 알고 있다. 이제 브라질은 보수 반동 세력을 대변하는 부자 백인 남성 장관들로 구성된 내각을 가지게 되었고, 내각의 목적은 이 나라의 특권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이미 매우 부족해진) 공공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빈곤층에게는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자들에게는 감면해주는 매우 불평등한 조세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노동당이 쇠약해지면서 의회는 브라질을 지배해왔던 엘리트들의 손아귀에 점점 더 놓이고 있다.

‘라바 자투’(Lava Jato)⁷⁾ 작전을 수행한 사법부의 기본적인 지원 없이 탄핵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부패구조에 브라질민주운동당과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중도우파)도 일조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사법부는 항상 노동당의 지도부를 표적 수사했다. 또 다른 본질적인 지지는 권력의 이해관계에 매우 정확히 부응하는, 극소수의 권력층이 장악한 패권적 언론이 제공했다. 노동당 지도부를 향한 부패 고발을 불거리로 만들고, 언론 검열을 계속하고, 노동당이 “브라질에서 가장 부패한 정당”일 것이라고 여론을 조작한 것이 탄핵 절차에 국민 대다수가 동조한 이유를 설명하는 요인들이다. 반(反)부패 투쟁(따라서 반(反)노동당 운동)은 매우 강력하였다.

진보 진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노동당의 몰락은 브라질 좌파 대부분의 몰락을 의미한다. 매 오랫동안 브라질에서 진보주의의 선택은 1980년대 만들어진 노동당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노조와 사회운동은 노동당의 그늘에 있었

7) 국영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수 백억 달러 자금 횡령에 관한 거대한 규모의 사법조사이다.

고 그 자율성을 상당 부분 상실했지만, 노동당은 제도화하여 정권을 잡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당의 근간이었던 좌파의 혁신이라는 정당 정신을 팔아야 했다. 노동당의 쇠퇴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예시는 지난 10월 실시된 지방선거의 극적인 결과다. 노동당은 전국 시장직(*alcaldía*)의 61%를 잃었는데, 여기에는 상파울루 “붉은띠”(cinturon rojo)⁸⁾의 유명한 보루들도 포함되어 있다. 노동계급 기반의 정치가 탄생한 상베르나르두(*San Bernardo*)도 그 가운데 하나다. 현 시장 페르낭두 아다드(*Fernando Haddad*)가 재선에 도전했던 상파울루에서 조앙 도리아(*João Doria*) 브라질사회민주당 후보는 2차 선거조차 필요 없는 53.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아다드의 패배는 심각하다. 그는 당 내부의 혁신 가능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차후 향방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노동당 인사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정치에 여백이란 없으니 크게 두 세력이 역사에 남을 이 패배의 수혜를 입었다. 하나는 2000년 이래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해서 브라질 국민의 24%를 통치하게 된 브라질사회민주당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당이 남긴 지역적 공백을 틈타 가뜩이나 고도로 분화된 브라질 정당 체계를 더욱더 파편화시킨 다양한 스펙트럼의 소수정당들이다. 결국, 노동당은 전국 자치도시 정치 파노라마에서 10분의 1만을 장악하게 되었다.

리우데자네이루 시장선거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선된 후보는 마르셀루 크리벨라(*Marcelo Crivella*)로 ‘하나님 왕국 세계교회’(Iglesia universal del Reino de Dios)⁹⁾의 주교이자 이 교단을 대변하는 정당인 브라질공화당(*PRB*)의 후보이며,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에디르 마세두(*Edir Macedo*) 주교의 조카이기도 하다. 에디르 마세두는 그 교단의 창시자로, 다수의 언론사를 포함한 거대제

8) 상파울루 주(州)의 산업지대로 주도인 상파울루 인근 지역들이다. 노동당의 발원지로 톨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였다. 상베르나르두는 상파울루 주에 속한 지역명이다-옮긴이.

9) 1977년 에디르 마세두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처음 설립했다. 이하 ‘세계교회’로 옮긴다-옮긴이.

국을 소유한 억만장자인데, 여러 건의 금융 관련 범죄로 기소되었다. 15년 전에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그의 경험을 담은 책이 출판된 바 있는데, 그 책에서 크리벨라는 동성애가 “악마에게 쫓는 행동”이라고 썼고, 다른 종교를 “악마의 종교”라고 비난했다.¹⁰⁾ 그는 10월 30일 사회주의자유당(PSOL) 후보인 마르셀루 프레이수(Marcelo Freixo)를 물리쳤다.

이 승리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기본적으로 신(新)오순절파(neopentecostal)를 표방하는 복음주의 교회가 브라질에서 확장하고 있는 세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¹¹⁾ 브라질은 세속국가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교회의 계획에 따라 브라질 역사상 첫 번째 복음주의 대통령을 배출하는 데 가까워져 있다. 크리벨라는 당선 소감 첫머리에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견해를 밝혔고, 마약 비범죄화에 관한 논의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했다. 파벨라(favela)¹²⁾의 흑인 빈곤 청년들이 불법 마약 유통으로 매일같이 죽고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한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도시에서 마약 비범죄화는 핵심 사안이다. 의회 내 복음주의자 집단 대부분은 LGBT의 권리와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제약하면서 기독교적인 ‘전통적 가족’의 가치를 강요하는 데 집착한다. 따라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동 모델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크리벨라의 승리는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가 치열한 자기성찰을 하고, 복음주의 교회가 브라질 변두리에서 어떻게 그토록 위세를 떨치게 되었는지 묻는 것은 중요하다. 본래 노동당의 핵심근거지였던 브라질 변두리는 점진적으로 노동당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자유당처럼 진보성향의 다른 정당들에게서 외면당했다. 사회주의자유당은 중

10) “Evangélico, creacionista y antiabortista” en *Página12*, 31/10/2016.

11) 다음을 볼 것. Lamia Oualalou: “El poder evangélico en Brasil” en *Nueva Sociedad* No 260, 11-12/2015, disponible en <www.nuso.org>.

12) 브라질 대도시 빈민촌을 뜻한다-옮긴이.

산층의 좌파 대학생들과는 소통하였지만, 소외된 국민 대다수의 언어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좌파 대부분이 반(反)자본 투쟁을 이론화하면서 그 영역을 대학으로 축소한 반면, 복음주의 교회들은 변두리 지역 사회의 강력한 중심이 되었고 그들이 내세우는 ‘번영의 신학’은 수백만의 표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들끓는 여론으로 인하여 실용적인 제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브라질에는 토론을 위한 여유가 없다. 브라질은 계속되는 카타르시스 속에서 살아가는 데 익숙하다.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뉴스 폭탄으로 사회적 평온이란 찾아보기 어렵고, 사건의 연속이 일상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의 정치는 존재하지 않고 적대적 정치만이 존재한다. 모두가 대화하는 법을 잊고, 실용적인 토론을 위한 공간도, 국가적 계획, 사회 모델, 개혁에 대한 논의를 위한 공간도 없다. 정치적 무기력과 좌절이 사회의 대부분을 지배하여, 사회는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인물에게 사로잡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라바 자투 작전에서 자신의 관할인 쿠리치바(Curitiba)의 법원보다 언론을 이용한 세르지우 모루(Sergio Moro) 판사의 법률적 포퓰리즘이 그러하다. 또한, 브라질을 선한 남성과 여성이 이루어내는 가족적 가치가 지배하는 기독교주의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종교적 포퓰리즘이 그러하다. 그리고 위기의 시대에는 공공 의료비와 교육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부자들의 거대한 세금 특권을 문제 삼지 않는 경제적 포퓰리즘이 그러하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논쟁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극우파를 대변하는 불길한 인물들이 부상하였다. 전직 군인이자 연방 의원인 자이르 볼소나루(Jair Bolsonaro)가 그런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모순적이지만 진보당(Partido Progressista) 소속으로 ‘총알 블록’(bloques de la bala)¹³⁾의 일원이다. 여성 혐오, 차별 위주, 인종차별, 무기유통 자

13) 포르투갈어로 Boi(소), Bíblia(성경), Bala(총알)의 앞 글자를 따서 BBB로 불리는 의회 내 그룹들이 이번 탄핵을 주도했다. 각각 농축산업자, 복음주의자, 치안강화를 주장하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 한다-옮긴이.

유화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발언으로 매우 대중적 인물로 떠올랐고, 2018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그 선거가 향후 2년 동안 브라질의 모습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미지수는 그때까지 톨라의 행보이다. 톨라 전 대통령은 모루 판사의 심리 아래 몇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한 가지 가능성은 톨라 역시 다른 노동당 지도자들처럼 재판을 받고 구금형에 처해지는 것이다. 이 가능성은 한편으로는 노동당에 결정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옹호하기 위해 국민들을 움직일 수도 있다. 톨라에게는 아직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 있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그가 가진 정치적 권리를 상실하여, 2018년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역량을 상실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지 노동당은 정치적 유령에 불과한 정당으로 남지 않기 위해 길고 고통스러운 재건의 과정을 보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점점 빠르게 진행하면서, 중기적으로나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없다. 라바 자투 작전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주요 인사가 체포될 때마다 정치적 장은 지각변동을 겪기 때문이다(지우마 호세프 탄핵에 찬성한 에두아르두 쿤아(Eduardo Cunha)도 해임되어 구금되었다).

테메르 정부도 쉽게 정권을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의 연합세력은 매우 이질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하다. 테메르는 소속정당인 브라질민주운동당 내에서조차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민주운동당은 단일정당으로 구성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여러 지역 파벌들의 집합이었다. 브라질민주운동당에서 자기 후보를 낼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브라질 재민주화 과정 이후 이 정당의 전략은 후보를 내지 않고 브라질 선거 시스템을 활용하여 권력의 옆자리를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정당은 승리한 정당들이 의석 다수를 확보하는 것을 방해하여 그들이 동맹을 찾도록 만든다. 훌륭한

‘택시 정당’(partido taxi)으로서 브라질민주노동당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브라질사회민주당이나 브라질공화당처럼 지금 연합한 세력 일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선거에서 경쟁자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노동당의 경쟁자였던 브라질사회민주당 역시 내부적으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아에시우 네비스(Aécio Neves: 2015년 대통령 선거 후보), 주제 세하(José Serra: 현 외교부 장관), 제랄두 알스밍(Geraldo Alckmin: 상파울루 주지사)이라는 굵직한 인물들이 ‘투카나’(tucana)¹⁴⁾의 후보가 되기 위한 형제의 난을 만들고 있다. 2018년은 먼 것 같지만, 정치에서 시간은 짧고 대통령 선거는 정부 연합세력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어디까지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지금 좌파는 노동당을 재건하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당의 기반과 시초가 되었던 기획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도전이자 좌파를 다시 대표하기 위한 도전이다. 또한, 공공 서비스를 위한 투쟁, 여성들의 투쟁, 파벨라에서 죽어가고 있는 빈곤 청년들의 투쟁,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들의 투쟁을 대표할 수 있기 위한 재건이다. 역사적으로 소비하기를 부정당했기 때문에 이제 소비를 지속하고자 하는 준 주변부를 잊어서도 안 된다. 노동당이 더 젊은 새로운 지도자들이 당을 이끌도록 지역 파벌들을 물러나게 할 혁신의 역량이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만약 없다면, 아마 진보주의의 축에서 다른 대안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하나의 정치적 기획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결집시키는 전선을 형성할 수도 있다. 또는 스스로 “노동당 내 좌파”라고 여기며 리우데자네이루 시장 후보를 두고 세계교회와 힘을 겨뤘은 사회주의자유당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회주의자유당은 아직은 대통령직을 두고 경쟁하거나 더 많은 의원 수를 확보할 가능성을 엿보게 해 줄 선거 전략을 찾지 못했다.

14) 큰부리새로 브라질사회민주당의 상징이다-윝킨이.

이러는 사이, 반정치 담론이 성장하고 있다. 상파울루 시장직에 당선된 조앙 도리아 후보 자체가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대행자입니다’(No yos político, soy gestor)라는 메시지로 선거홍보를 하여 승리했다. ‘신진’이라고 소개하는 후보들 다수가 그 밑바탕에는 세습적이고 논지를 흐리는 구태의연한 정치를 깔고 있는데, 이들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 의무투표제에 익숙한 나라에서 기권, 백지투표, 무효표의 수가 이번 선거에서 최고기록을 세웠다. 이 모든 쟁점들은 염려스럽다. 정치를 거부하는 담론들은 각종 반(反)민주주의적 태도를 향한 문을 열어주는 셈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미국의 트럼프 현상이나 브라질의 볼소나루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혐오의 담론들은 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담론들로부터 자라난다.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브라질 좌파는 자기 상처로 인해 웅크리고 있을 수 없다. 좌파는 자기성찰이 필요하고, 브라질 시민들에게 진보적 선택권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수행해야 한다. 고도로 불평등한 나라에서, 전쟁 중인 국가와 비견될 만큼 높은 살인율을 보이는 나라에서, 여전히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교육권, 건강권, 재판권을 보장받지 못한 나라에서 좌파의 대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존의 문제다. 분명한 것은 브라질리아(Brasilia)를 지배했던 커다란 기업이 세력이 좌파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는 동안 브라질은 노동권의 축소와 사회복지비용의 절감이라는 보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점이다. 테메르가 권력을 차지한 후부터 사회적 역행의 의제는 분명하다. 공적 자금을 제한하는 법 개정, 노동법 또는 연금 개혁은 정부 주요 의제다. 더구나 종교적이고 처벌 위주의 근본주의자 집단들 즉, 그 유명한 의회의 ‘성경과 총알 그룹’(bancadas de la Biblia y de la bala)은 탄핵에 표를 던져준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형사 처벌 대상연령 하향조정 법안, 총기소지제한법(Estatuo de desarme)의 폐지, 낙태의 범죄화 같은 계획이 이제 테이블 위에 올라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권리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열망이 수많은 사회 영역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글을 쓰는 동안 천 개 이상의 공립학교가 더 나은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점거당했다. 많은 페미니스트 집단들이 자기 몸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며 근본주의적 복음 집단들과 맞서기 위해 조직화하고 있다. 변두리 흑인 집단들은 군·경찰의 손에 의해 흑인 빈곤 청년들이 탄압되는 데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커다란 변화의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에 관한 문제이다. 그들은 정당구조가 쓸모없고 경직되고 지나치게 틀에 박혔다고 평가하며 그것과 일체감을 느끼지 못한다. 직면한 도전은 이러한 젊고 역동적인 새로운 형식의 운동과 제도화된 좌파와의 대화를 마련하고, 정치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주변부 사람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시선이 노동당과 당내 현상유지파와 개혁파 사이의 내부적 긴장에 쏠려 있다. 당을 다시 사회와 긴밀하게 만들고 진보주의라는 당의 입지를 되살리기 위해 당 내부적으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당 지도부가 그러한 태도를 보일 준비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이 스스로를 구하고자 하는지, 브라질에 매우 중요했던 정치적 기획을 구하고자 하는지 알 수 없다.

박수경 옮김

